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26일 서울 평화공원에서 농경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서울서 농경문화체험행사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친환경 농업과 농촌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곳은 군산시가 관내 농·축·수산인의 소득증대 등 지역 농업 발전을 목표로 지난 2020년 설립, 운영중이다.

학교·복지·공공·기업급식을 비롯해 새만금 지구의 신생 기업에 지역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공급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로 사업영역 확장 및 지역 순환경제 창출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도·농 교류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26일 서울 은평구 평화공원에서 개최한 농경문화체험 타작한마당 행사도 이런 맥락이다.

이 행사는 수확철을 맞아 소비자들에게 농업·농촌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산시가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 일환으로 도심속 한복판에서 펼쳐졌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다.

이날 행사는 서울 은평구 소재의 어린이집 원생과 부모, 교직원 등 1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도심 속으로 옮겨놓은 작은 농촌에서의 오감만족'이란 주제로 떡메치기, 흙태체험, 국화꽃심기, 흙촉감놀이 등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어린이들에게는 전통적인 벼 수확 체험을, 어른들에게는 어릴적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이런 체험 행사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채왕균 소장은 "이 행사가 잊혀져가는 농경문화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농업의 가치 및 중요성을 익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도심으로 옮겨놓은 작은 농촌 '오감만족'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서울은평구서 타작한마당 행사

군산시는 26일 도·농 교류를 활성화해 소비자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하고자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서울 은평구 평화공원에서 수확철을 맞아 도심 속 농경문화체험 타작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에서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앞서 지난 6월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은평구 등 40개소 어린이집에 소규모는 조성 및 모내기를 실시한 바 있

다. 이날 행사는 수확시기인 가을철을 맞아 떡만들기 및 농업·농촌 체험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서울 은평구 소재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2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도심 속으로 옮겨놓은 작은 농촌에서의 오감만족으로 떡메치기, 흙태체험, 국화꽃심기, 흙촉감놀이 및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농경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체험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어린이들에게는 전통적인 벼 수확 체험을, 어른들에게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26일 서울은평구 평화공원에서 수확철을 맞아 도심 속 농경문화체험 타작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어릴적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이런 체험 행사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주 먹거리정책과장은 "이번 타작한마당을 통해 잊혀져가는

농경문화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농업의 가치 및 중요성을 익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 송기문 기자
jbskm@naver.com



군산시, 도심 속 어린이들에 농경문화 선사 호응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수확철을 맞은 26일, 서울 은평구 평화공원을 찾아 도심 속 농경문화체험 타작한마당 행사를 갖고 떡만들기 등 농업·농촌체험 선사로 큰 호응을 받았다.

이 행사는 군산시가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사업의 일환으로 도·농 교류 활성화로 소비자에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에 목적을 뒀다.

이 행사에 앞서 지난 6월께도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은평구 등 40개 소 어린이집에 소규모 논 조성과 모내기도 진행했다.

이날 시는 서울 은평구 일대 어린이집을 대

상으로 도심 속으로 옮겨놓은 작은 농촌에서의 떡메치기, 흙태체험, 국화꽃심기, 흙촉감놀이와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농경문화체험을 선사했다.

체험행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한 관계자는 “어린이들에게는 전통적인 벼 수확 체험을, 어른들에게는 어릴적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이런 체험 행사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주 시 먹거리정책과장은 “타작한마당을 통해 잊혀져가는 농경문화체험으로 도심속 어린이들이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아가는 기회가 됐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백용규 기자



사진 제공=군산시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서울서 농경문화체험 '호응'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26일 서울 은평구 평화공원에서 도심 속 농경문화체험 타작한마당 행사를 개최, 호응을 얻었다. 이 행사는 수확철을 맞아 도·농 교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마련됐다. 시에서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서울 은평구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1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도심 속으로 옮겨놓은 작은 농촌에서의 오감만족으로 떡메치기, 흙태체험, 국화꽃심기, 흙촉감놀이 및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농경문화체험이 진행됐다.

군산=이환규 기자

군산, '도심 속 농경체험 행사' 개최



서울 은평구 소재 어린이집 대상

군산시는 26일 도·농 교류를 활성화해 소비자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하고자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서울 은평구 평화공원에서 수확철을 맞아 도심 속 농경문화체험 타작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시에서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앞서 지난 6월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은평구 등 40개 소 어린이집에 소규모 논 조성 및 모내기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수확시기인 가을철을 맞아 떡만들기 및 농업·농촌체험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서울 은평구 소재의 어린이집

을 대상으로 1,2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도심 속으로 옮겨놓은 작은 농촌에서의 오감만족으로 떡메치기, 흙태체험, 국화꽃심기, 흙족감놀이 및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농경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체험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어린이들에게는 전통적인 벼 수확 체험을, 어른들에게는 어릴적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이런 체험 행사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주 먹거리정책과장은 “이번 타작한마당을 통해 잊혀져가는 농경문화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농업의 가치 및 중요성을 익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박수현 기자



군산시, 도심 속 농경문화체험 타작한마당

군산시는 26일 도·농 교류를 활성화해 소비자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하고자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서울 은평구 평화공원에서 수확철을 맞아 도심 속 농경문화체험 타작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에서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앞서 지난 6월 도농 상생 공공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은평구 등 40개소 어린이집에 소규모 논 조성 및 모내기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수확시기인 가을철을 맞아 떡만들기 및 농업·농촌체험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서울 은평구 소재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2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도심 속으로 옮겨놓은 작은 농촌에서의 오감만족으로 떡메치기, 홀태체험, 국화꽃심기, 흙촉감놀이 및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농경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체험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어린이들에게는 전통적인 벼 수확 체험을 어른들에게는 어릴적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이런 체험 행사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주 먹거리정책과장은 "이번 타작한마당을 통해 잊혀져가는 농경문화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농업의 가치 및 중요성을 익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기자



군산농기센터 서울 타작 한마당 행사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26일 도농 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를 위해 서울 은평구 평화공원에서 농경문화체험 타작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이날 타작한마당 행사는 시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어린이집 원생 1,2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떡메치기, 홀태체험, 국화꽃심기, 흙촉감놀이 및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농경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월 도농 상생 공공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은평구 등 40개소 어린이집에 소규모 논 조성 및 모내기를 실시한 바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006면 지역

군산시, 서울 은평구서 '타작한마당' 행사 진행

군산시는 26일 도·농 교류를 활성화해 소비자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하고자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서울 은평구 평화공원에서 수확철을 맞아 도심 속 농경문화체험 타작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에서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앞서 지난 6월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은평구 등 4개소 어린이집에 소규모 논 조성 및 모내기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수확시기인 가을철을 맞아 떡만들기 및 농업·농촌체험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서울 은평구 소재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2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도심 속으로 옮겨놓은 작은 농촌에서의 오감만족으로 떡메치기, 흙태체험, 국화꽃심기, 흙촉감놀이 및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농경문화 체험을 실시했다.

/군산=김낙현 기자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007면 지역

군산시, 도·농 교류 활성화 도심 속 농경문화체험 행사

군산시가 26일 도·농 교류를 활성화해 소비자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하고자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서울 은평구 평화공원에서 수확철을 맞아 도심 속 농경문화체험 타작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에서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앞서 지난 6월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은평구 등 4개소 어린이집에 소규모 논 조성 및 모내기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수확시기인 가을철을 맞아 떡만들기 및 농업·농촌체험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서울 은평구 소재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2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도심 속으로 옮겨놓은 작은 농촌에서의 오감만족으로 떡메치기, 흙태체험, 국화꽃심기, 흙촉감놀이 및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농경문화 체험을 실시했다.

체험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체험 행사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정일 기자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서울시 농경문화체험 행사

어린이집 1200여명, 농업 가치·중요성 배워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26일 서울 은평구 평화공원에서 수확철을 맞아 도심 속 농경문화체험 타작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 6월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은평구 등 40개소 어린이집에 소규모 논 조성 및 모내기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집 대상 1,200여명이 참여해 떡메치기, 훌태체험, 국화꽃심기, 흙촉감놀이,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농경문화체험으로 진행됐다.

체험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어린이들에게는 전통적인 벼 수확 체험을, 어른들에게는 어릴적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이런 체험 행사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주 시 먹거리정책과장은 “이번 농경문화체험 타작한마당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농업의 가치 및 중요성을 익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전북제일신문

도심 속 옮겨놓은 작은 농촌에서 ‘오감만족’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서울 은평구서 타작한마당 행사

군산시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26일 서울 은평구 평화공원에서 수확철을 맞아 도심 속 농경문화체험 타작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가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시는 서울 은평구 소재의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1,2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도심 속으로 옮겨놓은 작은 농촌에서의 오감만족으로 떡메치기, 훌태체험, 국화꽃심기, 흙촉감놀이 및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농경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체험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어린이들에게는 전통적인

벼 수확 체험을, 어른들에게는 어릴적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체험 행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선주 먹거리정책과장은 “이번 타작한마당을 통해 잊혀져가는 농경문화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농업의 가치 및 중요성을 익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이찬우 기자